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매화축제 '성료' 상춘객 134만명 다녀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축제 질 높아졌다 평가



광양시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1회 광양매화축제' 기간 10일 동안 134만여 명이 상춘객이 찾으며 대한민국 첫 봄꽃 축제의 대 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 봄 미세먼지와 이른 개화 탓으로 지난 해 최고 관광객 수 150여 만 명보다 10% 가량 줄어 수적인 성장은 멈췄으나, 새로운 축제 프로그램 도입으로 질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다.

8일 광양 구례, 하동 3개 시군의 영호남 화합행사를 개막식으로 대체하며, 어린이들이 완성한 구구소환도(九九消寒圖) 퍼포먼스와 어린 연어 방류행사, '차(茶)와 율화매(輪回梅)의 만남', 광양시립합창단 공연 등 은은하고 향기로운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열었다.

행사 마지막 날 메인행사로 기획된 '매화향 섬진강 이야기'는 정매

실농민 흥소리 명인, 소리꾼 장사익,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함께 하는 3인3색 토크콘서트와 농민신문사의 후원으로 저술된 흥 명인의 '행복아, 너는 누하고 살고 싶냐' 출판기념회를 곁들이게 됐다.

현직 대법관과 전직 검찰총장, 전직 경제부총리, 우리나라 대표 원로 영화감독과 배우, 가수 등 다양한 곳에서 최고봉에 이른 사람들이 경향각지에서 대거 참여해 감동과 따뜻함이 가득한 최고의 자리가 됐다.

흥 명인의 인생스토리에 지인들의 축사와 시낭송 무대는 관광객들의 참여 몰입도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눈물과 웃음 속에 함께 한 모든 이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을 연출했다.

시는 올 매화축제는 젊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 도입에 기대했던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운 대목도 있었

다고 자평했다. 축제 프로그램은 주제에 부합한 정체성을 살리면서 대중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번 축제를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면서 다소 실험적인 고품격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매화축제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차와 율화매의 만남'은 매화라는 꽃에 문화를 접목한 것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겼던 고급문화를 재현한 특별함으로 큰 인상을 남기면서 향후 매화문화관에서 정기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것을 권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축제장 곳곳에 설치한 포토존과 포토월은 인생샷을 남기려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큰 인기를 끌었고 찾아가는 DJ 박스는 젊은 관광객들이 사연과 음악을 즉석에서 신청하며 즐기는 모습을 연출했다.

매화문화관 앞 야외 무대에서 펼쳐진 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의 품격 있는 공연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한 시간 가량 온전히 즐기게 했다.

매년 반복됐던 교통체증 문제는 아침 일찍 찾은 관광객들이 많아 관광객이 하루 종일 분산되는 효과를 거두며 예년보다 다소 나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축제장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갈수록 늘어가는 사유지 노점상과 품바공연이 힐링축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시 이미지를 훼손시켜 큰 개선과제로 남는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내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확정

잡월드 개관·4차산업혁명박람회 등 연계 직업체협의 장 마련

순천시가 교육부 주관 2020년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주관기관 선정 공모에 참여해 유치 경쟁자인 인천 연수구와 충남 당진시를 제치고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개최지로 선정에는 순천시와 전라남도교육청이 2019년 9월 개관에 정으로 공동부지한 대규모 컨벤션 기능과 전시, 공연, 회의 공간을 갖춘 예전에유체협센터와 2020년 개관예정인 순천잡월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0년 개최예정인 '4차산업혁명박람회'와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높여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순천시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협약하는 등 강력한 개최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이다.

이번 확정된 2020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내 삶의 미래, 순천에서 찾다를 주제로 예전에유체협센터로 주무대로 전시장,

홍보관,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순천민국가정원 잔디마당과 국제습지센터에서 기념행사와 컨퍼런스 등이 진행된다.

즐거다, 맛보다, 배우다, 나누다, 느끼다, 오미민족을 테마로 참여마당, 화합마당, 체험마당, 학술마당, 그리고 평생학습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아보는 기존박람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평생학습 역사관 등 특별행사도 선보일 계획이며 잡월드와 4차산업혁명클러스터를 통한 다채로운 미래 직업체험도 가능하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남도 최초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확정

광양시는 민선7기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백운산 명품 치유·힐링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첫 관문인 광양 백운산 산림복지지구 지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내에서 최초이자 전국에서는 국·공립을 포함 8번째로 정현복 광양시장을 중심으로 시의회와 함께 중앙부처 정책 동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특히 국고건의 신규사업 발굴 활동으로 산림청, 전남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공격적인 산림 행정을 펼친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된 곳은 옥룡면 추산리 산14번지 일원 170ha(국유지 159.3, 공유지

8.7, 사유지 2.0)로 현재 자연휴양림, 식물생태숲,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다양한 산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0여 원을 투입하여 백운산 명품 치유·힐링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산림복지지구를 자연휴양림지구(41.3ha), 치유의 숲지구(55ha), 산림교육지구(61.6ha), 산림레포츠지구(12.1ha)로 나누고, 각 지구별로 기 조성된 산림복지 시설 외에 팹팸어울림,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산림레포츠시설 등 부족한 시설을 확충한다.

특히, 반려동물 1천만 인구시대

트렌드를 반영해 전국 최초로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입실이 가능한 숙박시설 팹팸어울림을 확충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주목 휴양림사업소장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백운산권에 기 조성된 산림문화·휴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며 "휴양, 치유, 교육, 문화,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 주암호 생태관, 올 7월 개관

군, 주암호 생태관 운영관리 및 활성화 용역 보고회 개최



보성군은 지난 18일 보성군 북내면에 건설 중인 보성 주암호 생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철우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주암호 생태관을 생태 체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민간위탁과 직접운영 방식

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주암호 생태관과 생태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생태의 중요성을 체

험할 수 있도록 개관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모태로 우리나라 생태교육의 요람지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항상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성군은 현재 100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하층 지상2층 규모의 생태관을 완공하였으며, 올 7월 개관을 목표로 생태관 내 콘텐츠 설치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

올 7월 개관하는 주암호 생태관에서는 습지 만들기 체험, 물고기 잡기 체험, 대형블록을 이용한 동식물 영상 만들기, 습지 이야기 등 전시와 생태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 돼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과 학생들의 생태 교육의 체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안구일 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인력의 증원, 산불 비상근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분절 소각산불 발생에 대비해 소각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과 단속을

통해 불법소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것.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20여명이 주말 동안 산불방지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진화대원 약 70여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소각금지 기간 중 산림 연결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자칫 산불

로 이어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준 소장은 "불법 산불 발생원인이 대부분 생활쓰레기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산과 연결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를 삼가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신청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점검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 방안 안내